

하하 festival

6~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야외무대

다채로운 '흥의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 7개 단체 공연
진주 '현장'·대전 '아신아트컴퍼니' 초청...프리마켓도

광주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 '하·하·하(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 페스티벌'이 오는 6~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과 야외무대 등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공연장 활성화와 전문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선정된 광주 지역 7개 예술단체가 '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상주단체들의 단독·합동공연, 경남 진주·대전 교류초청 무대,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 아트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페스티벌의 시작은 2018년 전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경남 진주 극단 '현장'의 난버벌 코믹 놀이극 '정크, 클라운' (6일 오후 7시)이 연다. 현장과 마임이스트 고재경의 협업으로 탄생한 '정크, 클라운'은 숙련된 팬터마임과 고물을 이용한 변용놀이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극이다. 버려진 선풍기 날개가 헬리콥터가 되고, 고장 난 청소기와 호스로 태풍과 물을 만들고,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가 물고기가 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간다.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주단체인 아트컴퍼니(6일 오후 8시

30분)은 한양에 사는 한량 박첨지가 광주 역사 속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포복절도'를 올린다. 전국 유량을 떠난 박첨지가 맛의 고장 전라도 광주를 찾았다 무등산 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80년 5월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학적이고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원광연 대표가 연출하고 박성용, 최진영, 정다현 등이 출연한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그린발레단은 '스트링&발레 판타지아' (7일 오후 5시) 무대를 꾸민다. 여성필은 레스피기의 '옛 춤곡과 아리아 3번 모음곡',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무곡'을 선보이고, 그린 발레단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춤곡으로 유명한 '왈푸르그스의 밤' 등에 맞춰 화려한 발레동작으로 무대를 수놓는다. 정윙태가 지휘봉을 잡고 조가영이 해설을 맡는다.

대전 대표 극단 아신아트컴퍼니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봄봄'을 소재로 유쾌한 마당극 형식의 뮤지컬 '정사초롱' (7일 오후 6시)을 선보인다. 동백꽃과 봄봄의 두 주인공이 각각 결혼에 성공해 한 날 한 시 같은 장소에서 혼례를 치른다는 상상을 입힌 작품으로 1920년대를 상사시키는 분장과 의상, 신나는 마당극 형식의 노래와 안무가 흥을 더한다.

서구문화센터 상주단체 극단 논다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전통문화연구회 열췌는 난버벌 퍼포먼스 동화극 '할아버지, 저예요!' (7일 오후 7시 30분)를 무대에 올린다. 맞벌이 부부인 엄마 아빠를 대신해 할아버지 손에 자란 인이 이야기다. 인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인이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랬듯 글씨 쓰기와 횡단보도 건너는 법을 가르치며 할아버지를 보살핀다. 조하석·강용복씨가 함께 글을 쓰고 연출했으며 김정환, 허진, 열췌가 출연한다.

남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사)선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광주현대무용단도 한무대(7일 오후 8시 30분)에 선다. 선율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랍소디'와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비교 감상하고 '위아 더 챔피언' 등 쿼의 명곡 메들리를 즐길 수 있다. 광주현대무용단은 라벨의 볼레로 연주에 맞춘 스펙터클하고 화려한 움직임으로 초가를 밤을 수놓는다.

6일 오후 5시 50분 열리는 페스티벌 개막은 호남씨어터의 팝뮤지컬 갈라 콘서트 '올 숙 업(All Shock Up)'과 함께 광주문화재단, 2019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가 함께하는 개막선언으로 시작한다.

그밖에 7개 상주단체의 주요 작품 소개 부스와 함께 목관4중주, 가족을 위한 연극체험프로그램, 목공예·쪽염색 손수건·방향제 만들기 등 공예체험도 즐길 수 있다. 하루 2개 이상 공연 관람 도장을 받은 시민에게는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전석초대 및 좌석예약제. 우천 시 모든 공연과 부대행사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과 로비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도 수목화 맥을 잇다'

광주시립미술관 '남도수목화협회' 전

지난해 결성된 '남도수목화협회'는 남도 예술의 근간인 수목화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작가들의 고민에서 탄생했다. 지난해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개최되면서 오랫동안 침체됐던 수목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수목화는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도 협회 결성의 계기가 됐다.

첫 해 회원전을 통해 모임의 방향성을 모색했던 남도수목화협회가 두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에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의 미술단체 초대전에 선정돼 전시를 치르게 됐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미술단체 초대 '남도수목화협회'전을 오는 10월 6일까지 하정음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전남 지역 미술단체의 활성화와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단체를 초청, 그룹전을 열고 있다.

남도 수목화는 예향 남도의 정취를 가장 잘 담아낸 예술 장르로 오랫동안 남도 지역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원로작가부터 청년작가에 이르는 남도수목화협회 회원들은 자기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목화의 정신과 특징을 표현해온 이들이다.



박인주 작 '어울림'

이번 전시에는 곽수봉·김금옥·김대원·김재일·박홍수·백현호·오경규·이민식·이선복·정인수·허달용·홍정호 등 46명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남도수목화협회 김대원 회장은 "학연, 지연, 계보 등을 떠나 수목화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고자 결성된 만큼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는 수목화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나가려 한다"며 "이번 두 번째 전시를 통해 남도수목화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늘과 땅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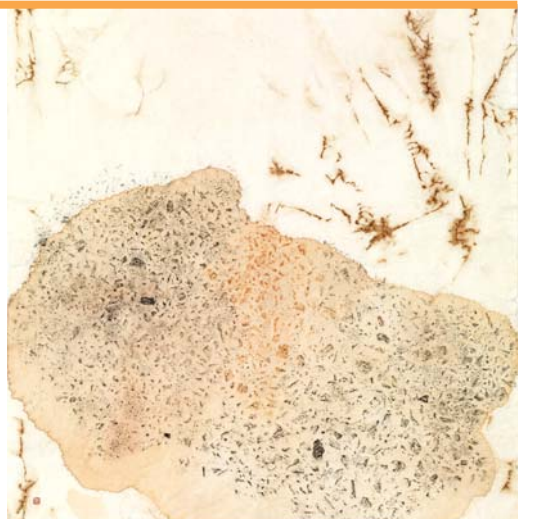
백미리내 개인전, 19일까지 예술공간 집

추상작업에 매진해온 한국화가 백미리내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 오는 19일(12·13일 휴관)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하늘과 땅 사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백 작가는 기존의 추상 작품과 새롭게 시도한 탁본작업들을 함께 전시한다.

2016년 첫 개인전 '땅과 땅 위의 것'을 시작으로 '순환-울림', '흔적-순환' 등을 통해 삶의 근원적 물음에 천착한 작업들을 전개해온 백 작가는 모래를 붓과 같은 도구로 활용해 땅 위에 흔적을 남기는 모든 것을 추상의 형상으로 표현해왔다.

'땅 위의 것들'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30년간 자신의 시간과 공간이 담긴 집 앞 골목길을 직접 그대로 옮겨보는 탁본 작업을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흔적들은 그대로 종이 위에 오묘를 남겼고, 땅 위 파여진 공간은 공백으로 도드라지기도 했다. 또 '하늘' 시리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하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다.

백 작가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生)과 존재에



'땅의 이름'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간다"며 "삶의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그대로 종이 위에 옮겨보며 그 체취를 오롯이 전달해보고 싶었다. 따뜻하고도 뜨거운 땅은 무엇이든 자라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전남대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백 작가는 은암미술관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청년작가지원전에 선정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서비스품질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INNOVATION AWARDS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